

고령화 트렌드 ‘택배식’의 인기

도쿄지사

일본의 택배식 시장 동향

- 일본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재택 배식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나 고령자가 재택 치료를 하는 경우도 늘어 시장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생겨난 트렌드로 저염식, 단백질 제한식 등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택배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야노경제연구소」의 의료급식시장 및 재택배식서비스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의 두 서비스를 합친 시장규모는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1.3%)한 2조 2,011억 엔(약 20조 2,353억 엔)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은 병원 수, 병상 수 모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있어 병원급식시장은 감소할 전망이다.
- 또한, 병원급식시장은 0.7% 감소한 1조 1,776억 엔(약 11조 7,848억 원), 고령자시설급식시장은 3.4% 증가한

9,045억 엔(약9조 519억 원), 재택배식서비스 시장은 6.3% 증가한 1,190억 엔(1조 1,909억 원)으로, 병원급식 시장이 축소되는 한편 고령자 시설과 재택 고령자의 증가를 반영한 고령자시설급식 및 재택배식서비스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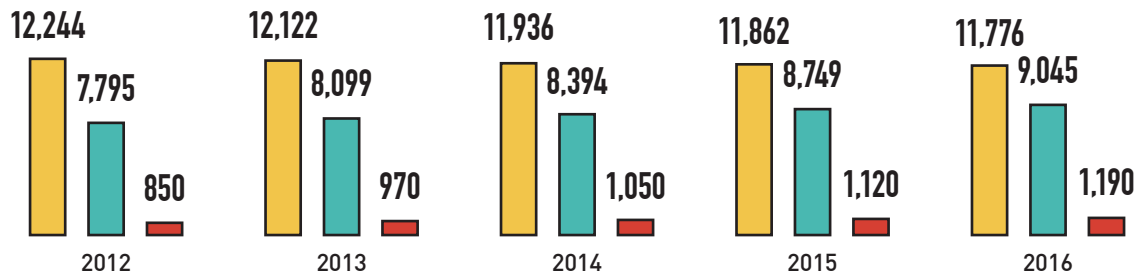
노년층을 공략한 건강식품 개발 필요

- 일본은 65세 고령자가 3,5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3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금융자산 비율이 높아 향후 한국식품의 구매에 대한 영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식품을 고령층에 친화적인 건강식품으로 포지셔닝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메디컬급식·재택배식서비스 시장의 분야별 시장규모추이

(단위 : 억 엔)

■ 병원급식 ■ 고령자시설급식 ■ 재택배달서비스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택배식 인기 순위

1위 웰르네스다이닝구(ウェルネスダイニング: 도시락 택배)



- 첫 주문가격 : 7식 4,300엔 부터
- 대응가능 증상 : 다이어트, 고령자, 단백질 제한식, 저염식
- 저염 식단과 칼로리 제한식 등 증상별로 6종류의 코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제공 빈도도 주 1회 ~ 월 1회까지 선택할 수 있어 처음 택배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

2위 완마이루(わんまいる: 도시락·반찬 택배)



- 첫 주문가격 : 3,480엔 부터(밥 포함안됨)
- 대응가능 증상 : 고령자, 건강유지
- 혼자 사는 고령자나 바빠서 밥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택배식이다. 반찬 3종 세트는 350Kcal정도이며, 단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반찬도 풍부하다.

3위 쇼쿠타쿠빙(食宅便: 도시락 택배)



- 추천코스 주문가격 : 7식 3,630엔
- 대응가능 증상 : 고령자, 다이어트, 단백질 제한식, 저염식
- 스테디셀러인 '추천코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본인이 메뉴를 고르는 '오코노미 셀렉트 코스'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저염식이나 단백질 제한 등의케어 시리즈도 충실하다.

4위 니치레이후즈다이레쿠토(ニチレイフーズダイレクト: 도시락, 레토르트식 등)



- 첫 주문가격 : 4식 2,980엔
- 대응가능 증상 : 다이어트, 저염식, 단백질 제한식, 일하는 여성
- 레토르트 카레나 반찬 등 1개부터 단품주문 가능한 상품이 많다. 다이어트, 단백질·염분 제한 등의 상품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